

※※※ 알림글 ※※※

티스토리 블로거 “차삐라” 입니다.
K리그 클래식, K리그 챌린지를 중심으로
AFC챔피언스리그, 내셔널리그, 대표팀 기록,
J리그 소식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 클릭하면 블로그 이동

<http://chappira.tistory.com>



번역 중 오타,오역,의역 등이 있으니
반드시 **원본을 확인**하십시오.

원본은 J리그 홈페이지 또는
차삐라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OFFICIAL NEWS LETTER

7 Aug. 2014 Vol.218

J.LEAGUE™ NEWS



©J.LEAGUE PHOTOS



©J.LEAGUE PHOTOS



©J.LEAGUE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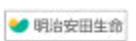
팬,서포터 대망의 J1리그전이 재개했다. 사진(좌)은 15R 우라와 vs 니가타. 위(우)는 16R 토스 vs 카와사키F. 아래(우)는 16R G오사카vs시미즈

J1 리그전 재개. 여름의 싸움이 진짜

FIFA월드컵에 따른 중단기간이 종료. 더위 속에서 국내 패권쟁탈이 점점 뜨겁다

SAMURAI BLUE(일본대표)가 축전한 2014FIFA월드컵브라질이 종료되고, 중단했던 J1리그전이 7월19일에 보복적으로 재개했다. 일본대표들도 소속클럽으로 돌아와, 리그재개를 기다렸던 팬,서포터도 경기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중단기간 전의 좋은 흐름을 계속 하고싶은 팀, 또는 새감독과 새 가임선수를 맞아 심기일전, 반격을 노리는 팀. 이런 각팀의 생각이 얹혀, 어떤 드라마가 연출될지 가 흥미롭다. 경기장에는 본격적인 여름의 더위를 웃도는 열기가 넘치고, 피치의 선수들도 승리를 노리며 땀다. 각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반전을 맞는 여름 싸움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2P에 연관기사)

J.LEAGUE™ TOP PARTNERS



2014 FIFA월드컵브라질을 끝내고
~J1리그전 재개 즈음해~

J리그 চে어맨 村井 満

2014FIFA월드컵브라질은 독일의 6대회만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1993년에 J리그가 시작돼 일본대표는 98년 이후 5대회연속으로 월드컵 출전을 해냈다. 그건 많은이의 기쁨과 슬픔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쌓아오며 성장해온 역사다. 그것만으로 이 대회에 대한 기대는 컸지만, 어렵게도 조별예선 탈락이 됐다. 그러나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속상함을 공유한 것은 일본 축구에게 「재산」이기도하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들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다시보며,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이다.



J리그가 오랫동안 참고해온 독일의 이번 대회 약진은 독일 축구의 오랜 노력이 결실 맺은 것이다. 중장기 시점에서 설계된 국내 육성시스템과, 그걸 지원하는 축구협회와 리그 협동관계. 평균임장자수 세계제일이라는 국내리그 분데스리가의 활성화와 대표팀의 월드컵 우승은 무관하지않다. 이번 독일대표는 23명 중 실제로 16명이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 있다. 월드컵은 실로 출전국의 종합력 싸움이다. 이번 16강에 진출한 멕시코와 미국에도 주목하고 있다. 멕시코에는 소년이 프로가 되기까지 약 백시합의 국제시합을 경험시키는 클럽도 있다. 힘든 환경 속에서 싸우는 최전장의 경험은 지정확정인 핸디캡이 있는 일본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하다. 또 미국은 프로스포츠대국으로서 우수한 마케팅력으로 국내리그를 궤도에 올려, 그걸 동반한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 양국에 한하지않고, 세계 각국이 자국이 놓은 환경을 분석하고, 대표강화화 국내리그 활성화 양립을 목표로 각자의 국정에 맞는 최적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도 4년후, 8년후 뿐만아니라, 10년, 20년 단위로 일본축구의 상황을 생각해야할 시기다. 미래를 담담할 유망한 젊은 선수는 일본 전국에 많이 있다. 육성 시스템 정비와 국제경험의 기회 창출등을 통해, 인재들을 계속적으로 육성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축구협회와 J리그가 이전 이상으로 협동에 갈 것이다.

J리그는 일본축구의 토대이며 모체다. 일본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J리그의 더 나은 성장과 규모확대가 필수다. 매 라운드 리그전에서는 이전 이상으로 뜨겁고 격렬한 시합을 실현한다. 그리고 J클럽이 AFC 챔피언스리그와 FIFA클럽월드컵이라는 세계의 힘든 환경에서 이겨나간다. J리그는 세계수준에서 싸우는 걸 늘 의식해 도전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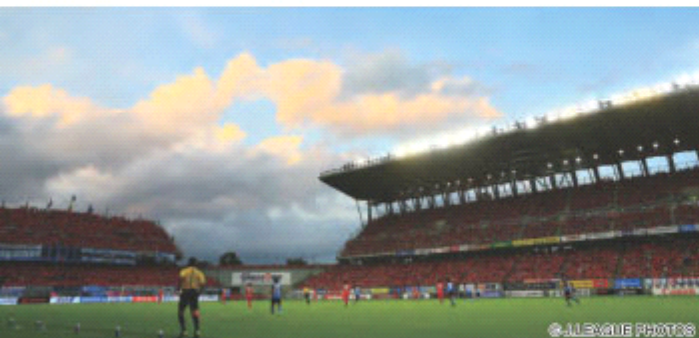
월드컵이 끝나고 J1리그전 재개즈음해 결의를 새롭게 하고 있다.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걸음 한걸음 전진을 계속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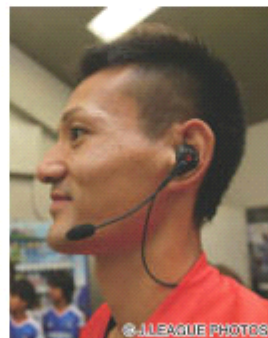
통산득점기록을 늘린 히로시마의 佐藤(우). 득점랭킹도 상위



나고야로 이적해 활약하는 레안드로도밍게스



토스는 최다입장자 기록을 갱신. 이날 이벤트 관계로 경기장은 빨강계 물들었다.



전자통신시스템 사용개시

J1 리그전 재개. 여름의 싸움이 진짜

FIFA월드컵에 따른 중단기간을 끝낸 J1 리그전은 7월15일에 AFC챔피언스리그 영향으로 연기됐던 12R 2시합을 하고, 19일 15R 9시합으로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리그전은 각 라운드마다 풍부한 화제를 제공하고 있다. 우라와레즈는 16R 토쿠시마볼티스전에서 J1 신기록이 되는 7시합 연속무실점을 달성. 산프레치히로시마의

의 FW佐藤 寿人은 15R의 오미야라디자전에서 2골을 넣어, J1 통산을 141고로서 역대득점 랭킹 3위로 부상. 사간토스는 베스트어메니티스타디움에서 열린 16R 카와사키F전에서 2만3277명을 모아, 클럽 사상 최다입장객을 기록했다. 새감독과 새가입선수에게도 주목돼, J1, J2리그전에서 앞서 발표했던 전자통신시스템(심판무선) 사용도 시작됐다.



삿포로로 가입한 小野의 플레이도 기대. J3 18R 아키타vs마치다.마치다는 1위



J2에서는 전일본대표인 MF小野 伸二의 콘사도레삿포르 이적도 화제. 明治安田생명 J3리그도 열전이 계속되고 있다. 각 시합장에서는 여름에 어울리는 이벤트도 팬, 서포터를 즐기게 했다.



워터파크(노에비야스타디움코베)



치어리더가 유카타로 마츠(IAI스타디움니혼타이라)



동일본대지진 피해지 현황을 전하는 부용지원 사진전도 각 경기장에서 실시

2014 J리그 월간베스트골/코카콜라 J리그 월간MVP

매월 J1리그에서 가장 우수한 골을 시상하는 「월간베스트골」에 5월은 FW小林悠(카와사키F)가 13R 카시마엔탈레스전(5월10일)에서 3분에 넣은 득점이 뽑혔다. 6월은 J1이 개최되지않아 심사하지 않았다. 월간 베스트골은 연간 가장 우수한 골에게 주어지는 「최우수골상」 후보가 돼, 이 상은 시즌 종료후에 개최되는 J리그 어워드에서 시상한다.

또 매월 리그전(J1,J2)에서 가장 활약한 선수를 시상하는 「코카콜라 J리그 월간 MVP」는 5월의 J1은 FW赤嶺真吾(베갈타센다이) J2는 FW船山貴之(마츠모토



「이런 상은 처음이라 매우 영광」 小林



赤嶺은 선발된 2시합에 서 결승골을 넣어 4연승 주역



6시합 4득점의 船山는 6시합 무패에 공헌



金森「이 상을 자신있게 앞으로도 힘내겠다」

야마가FC), 6월 J2는 FW金森健志(아비스파후쿠오카)가 뽑혔다. 6월은 J1이 개최되지않아 심사하지 않았다. J1 수상자

에게는 30만에, J2수상자에게는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Gothia Cup 2014에서 U-14 J리그선발이 우승



역사있는 국제대회에서 훌륭하게 우승

스웨덴 에테보리에서 7월14~19일에 개최된 「Gothia Cup 2014」의 U15 Boys 카테고리(208팀이 출전) 결승에서 U-14 J리그선발이 2-2 후 승부차기에서 TSV

110개 피치에서 중 4795시합을 한다. 과거에는 사비알론소(스페인) 안드레아피를로(이탈리아)등, 세계적인 선수도 출전했다. U-14 J리그선발은 매해 해외캠프

바벨세(독일)을 5-3으로 누르고, 멋지게 우승을 장식했다. 이 대회는 1975년부터 열리는 세계최대규모의 국제유스대회. 이 대회는 73개국, 1660팀, 3만 8200명의 선수가 에테보리 시내에 있는

의 일환으로 참가해 이 대회에서 일본팀의 우승은 처음. 대회리포트는 다음호에 게재예정



귀국한 팀을 村井満 J리그체어맨이 공항에서 마중

활발하게 동남아시아국과 교류

J리그가 후원한 「일본미얀마 외교관계수립 60주년 기념 일본대단 자선경기 야만컵」이 6월28일에 미얀마의 양곤에서 개최됐다. 미얀마 주재의 일본인을 포함한 약 1만2천명의 입장자가 관전해 세레소오사카가 미얀마 대표에 1-0으로 승리했다. 대회개최와 함께 팬서포터로부터 레플리카 유니폼등을 모집했다. 모인 746개를 가지고 시합 다음날부터 각지를 방문 C오사카보급부 코치의 협력을 얻어, 현지 양육 시설등에서 축구교실을 개최해, 아이들에게 옷을 선물했다.

또 안마주식회사와 J리그토프파트너인 주식회사 제시비를 비롯한 대회스폰서 협력을 얻고, 유니폼과 스포츠용품을 제공. 협찬



팬,서포터 후의로 모은 옷을 입고 기뻐하는 미얀마 아이들

금의 일부는 현지 학생의 장학금등으로 사용된다. J리그로부터는 村井満체어맨등이 수행해, 미얀마축구협회를 비롯한 현지 관계자를 방문했다.

거기에 J리그는 6월19~20일에 태국국경 옴비안난민캠프에서 개최된 캠프 「축구페스티벌」(주최:공익사단법인 산티국제자원봉사회 메소트사업소)를 후원했다. 축구교실, 교류시합을 개최해, 난민캠프의 아이들에게 축구 그림책 들려주기를 해, 축구를 통해 독서에 대한 관심도 높이는 활동도 실시했다.

U-16,U-15,U-14,U-13 2014 J리그 선발 미얀마/브라질/스웨덴/베트남 해외캠프에 파견

J리그는 7월부터 9월에 걸쳐 U-16 J리그선발을 미얀마, U-15 J리그선발을 브라질, U-14 J리그 선발을 스웨덴(위 참고),U13 J리그 선발을 베트남으로 각각 파견해 해외캠프를 실시. 이 캠프는 J1,J2클럽의 아카데미에 소속된 선수를 선발해 국제시합의 경험을 통해 경기력 향상의 기회를 줄뿐만 아니라, 해외문화를 접해 현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경험을 통해 풍요로운 인간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세계에서 J클럽의 아카데미 선수의 레벨을 파악하고, 이후 선수육성, 지도에 환원한다. 각 캠프의 상세에 대해서는 다음호 이후에 소개할 예정.

Integrity of Sport 심포지움에 村井 체어맨이 등단

J리그가 후원하는 독립행정법인 일본스포츠 진흥센터 주최의 심포지움 「Integrity of Sport 심포지움」~스포츠 완전성, 고결성을 지켜며, 그 가치를 높여가기위해~가 6월7일에 열려, 村井満 J리그 체어맨이 패널리스트로서 참가했다.

심포지움은 승부조작,위법도박,도핑,통제결여,폭행등의 스포츠계의 위협으로부터 스포츠의 완전성과 고결성 (Integrity of Sport)를 지키는 중요성을 주지하고, 공정 공평한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축구연맹(FIFA) 협력아래 개최. 스포츠에 대한 깨끗하고 공정한 자세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테마로, 패널토론등이 열렸다.

실행위원선임

J리그는 7월15일부로 카타레토야마의 실행위원을 清原邦彦 씨에서 酒井英治(사카이히데하루씨로 변경하는 결 승인했다.(5월 J리그 이사회에서 승인)

실행위원			敬称略
클럽명	변경전	변경후	
카타레토야마	清原 邦彦 株式会社カターレ富山 代表取締役社長	酒井 英治 株式会社カターレ富山 代表取締役社長 ※7月15日付で同様に就任	

참여선임

J리그는 7월15일부로 카타레토야마의 실행위원을 퇴임한 清原邦彦씨를 참여로 선임했다.(5월 J리그 이사회에서 승인)

참여		敬称略
성명	실행위원 재직기간	
清原邦彦	2009년5월~14년7월(재임기간 5년1개월 ※2014년7월15일시점)	

제1회 J리그,K리그 연수회를 개최

리그와 K리그는 아시아축구전체의 발전을 시야에, 일본과 한국의 축구경기력향상 및 국내리그 발전을 위한 양 리그간의 정보공유, 협동 축진을 위해, 계속적인 연수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 연수회 제1회로서 K리그 스태프가 방문해 7월2~3일에 村井満 J리그 চে어맨과 일본축구협회(JFA)관계자, 각부 담당자와 정보공유, 의견교환등을 했다. 연수회에서는 양국 축구 과제와 전망을 공유해,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J클럽의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지지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으며, 참가한 K리그 스태프들은 J리그 클럽라이센스 제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JFA와 J리그에게 중요한 과제인 AFC챔피언스리그에 대한 의견교환도 있었다.

~3개의 페어플레이 선언~ J클럽에서 소셜,페어플레이에 관한 인권연수에서 범무성과 협동

J리그가 4월22일에 발표한 「3개의 페어플레이 선언」을 토대로, 각 클럽에서 「소셜페어플레이」에 관한 인권연수에서, 범무성인권옹호국과 이전 이상회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J리그 및 각 클럽에서 선임된 컴플라이언스오피서를 중심으로, 소속된 회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소셜 페어플레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 간다. J리그는 이 연수를 통해 철저한 소셜 페어플레이를 도모함과 함께 이전처럼 비슷한 사안에 대해 하나 하나 신중히 대응해 성실히 계발을 계속하며, 배우는 것을 통해 보다 한층 공정하고 개방적인 리그를 노린다.

학교법인 立命館과 사업제휴를 체결

공익재단법인 일본프로축구리그 (이하 J리그)는 학교법인立命館(이하立命館)과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立命館은 2대학(立命館대학, 立命館아시아대평양대학), 4고교, 4중학교, 1초등학교 종합학원으로 J리그는 立命館 전체와 사업제휴를 한다. 사업제휴는 J리그가 내거는 「아시아전략」의 더 나은 발전과 스포츠계에서 활약하는 인재의 육성등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문화,스포츠진흥,발전」 「인재육성」 「지역진흥」 「국제교류」 「학생등 인적교류」 5항목. J리그와 立命館이 하는 구체적인 노력과 사업에 관해서는 쌍방 협의로 결정한다.

마루한컵 제6회 파워체어풋볼 블록선발대회를 후원

J리그는 7월29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마루한컵 제6회 파워체어풋볼 블록선발대회」(주최:일본전동휠체어축구협회)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에서 전동휠체어축구의 보급진흥 및 월드컵을 위한 기술향상, 선수 육성강화를 목적으로, 8월24일(일)에 카고시마아리나에서 열린다.

2014 J리그아마자키나비스코컵

2014 J리그아마자키나비스코컵은 6월1일에 예선리그를 종료해, 결승토너먼트에 진출하는 8팀이 모였다. 예선리그를 돌파한 것은 그룹A부터 감바오사카, 빗셀코베, B에서 우라와레즈, 카시와레이슬 4팀. 여기에 AFC챔피언스리그 2014참가로 준준결승부터 출전하는 카와사키F,요코하마F마리노스,세레소오사카,산프레체히로시마를 더한 8팀이 준준결승을 싸운다. 홈&어웨이예의한 결승은 9월3일(수) 7일(일)에 개최. 대진에 대해서는 다음호에서 알린다.

아아템컵 2014 풋살대회를 후원

J리그는 7월29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J리그토타파트너인 주식회사 아이템이 주최하는 「아아템컵 2014 풋살대회」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회는 구인정보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아이템의 이념을 구현해, 다양한 지역에서 올해 12월까지 개최되며, 취직활동을 기다리는 대학생간 커뮤니케이션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또 블라인드사커 체험장도 만들어, 장애인 스포츠를 인지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2014 코카콜라웨스트 산프레세컵(U-15.U-12)를 후원

J리그는 7월29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작년에 이어 「2014 코카콜라웨스트 산프레세컵(U-15.U-12)」(주최:주식회사 산프레체히로시마)를 후원하는 결 승인했다. 이 대회는 U-15 및 U-12연령대의 이상적인 시합형식을 이용한 게임환경을 정비해, 개인 육성 및 지도자 교류, 정보공유를 함과 동시에, 풍요로운 인간성을 키우는 결 목적으로 개최된다.

제37회 일본 스포츠데이매치를 후원

J리그는 7월29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J리그 백년구상 파트너인 아시아신문사등이 주최하는 「제37회 일본 스포츠데이매치」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최대 국제색이 풍부한 워킹대회로, 남녀노소가 건강한 심신을 가지기위한 「생애스포츠」를 즐기며, 해외로부터 참가자와 국제교류의 실제 체험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벤트. 11월1일(토)~3일(월)에 東松山市立松山제1초등학교를 중앙회장에서 열려, 3개의 루트를 끈는다.

오사카 인권박물관기획전 「Say No To Racism~인종차별에 레드카드~」를 후원

J리그는 7월29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공익재단법인 오사카인권박물관, 오사카변호사회, 일반재단법인 오사카부 축구협회가 공동개최하는 오사카 인권박물관 기획전 「Say No To Racism~인종차별에 레드카드~」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이벤트는 인권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결 목적으로 9월20일(토)까지 오사카 인권박물관에서 개최되고 있다. 또 8월20일(토)에 개최하는 심포지움에는 村井満 J리그 চে어맨이 참가예정

「출판 알림」

「백년구상이 있는 풍경」

저자:傍士 銚太

발행:주식회사 베이스볼매거진사

정가:1500엔+세금

전 J리그 이사인 저자가 2007년 12월~14년 1월에 J리그 공식홈페이지에 연재한 150회에 걸친 칼럼가운데에서 가필수정해 편집. 「J리그가 목표로하는 스포츠와 지역의 인연을 짓는 주옥의 칼럼」(村井満 J리그 চে어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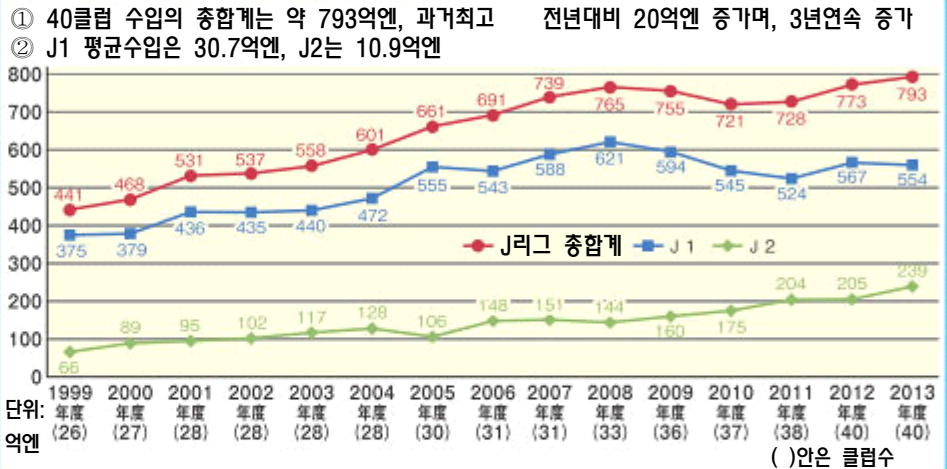
2013년도 J클럽 경영정보개시

J리그는 J클럽 경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클럽별 개별정보를 발표하고 있다. 2013 회계연도분은 7월22일에 발표, 미디어용 개시내용 설명회가 열렸다.

1. 2013시즌 주요 토픽스

- ① J1에서는 산프레체히로시마가 2연패 요코하마F마리노스가 J1리그전 최다입장 자기기록갱신 (2013년11월30일 vs알비렉스 니가타,닛산스타디움 6만2632명)
- ② J2로 강등한 규바오사카가 우승해 1년만에 J1에 복귀
G오사카를 맞이한 홈클럽에서 최다입장자 기록을 갱신한 클럽속출 (야마모토야마가 FC, 카타레토야마, FC기후, 가이나레토토리, 파지아노오카야마, V파렌나가사키)
- ③ J3발족이 결정
2014시즌부터 11클럽을 새롭게 받아들여, 「J리그언더22선발」을 포함해 12팀이 시작
- ④ 2015시즌부터 J1을 「2스테이지제 리그전 및 포스트시즌」으로 하기로 결정

2. 전 클럽의 영업수입(매상고) 합계



3. 결산수치 (40클럽 합계) 개요

광고료수입, 입장료수입 증가, 수입규모 확대에 기여
· 40클럽 합계 당기순이익은 10억 8700억엔으로 전년대비 증가
· 수입을 합쳐 팀 인건비도 증가해 「확대균형형」 경향이 되고 있다.
(단위: 백만엔 ▲: 순실)

		J1+J2 합계			
손익 총괄	과목	2012년도	2013년도	증감액	증감비
	영업수입	77,333	79,369	2,036	102.6%
	광고료수입	35,096	37,225	2,129	106.0%
	입장료수입	15,324	16,423	1,099	107.1%
	J리그매부금	6,169	6,079	▲ 90	98.5%
	아카데미관련수입	4,136	4,470	334	108.0%
	그 외 수입	16,611	15,174	▲ 1,437	91.3%
	영업비용	76,639	79,577	2,938	103.8%
	팀인건비	33,309	35,294	1,985	105.9%
	시합관련경비	6,650	6,749	99	101.4%
	틀팀 운영경비	8,002	8,414	412	105.1%
	아카데미운영경비	2,864	3,045	181	106.3%
	여자팀 운영경비	228	263	35	115.3%
	파매비 및 일반관리비	25,585	25,810	225	100.8%
	영업이익	692	▲ 207	▲ 899	-
	영업외수입	693	749	56	108.0%
	영업외비용	368	145	▲ 223	39.4%
	당기이익	1,015	398	▲ 617	39.2%
	특별이익	250	1,252	1,002	500.8%
	특별손실	411	45	▲ 366	10.9%
	세전당기이익	855	1,604	749	187.6%
	법인세 및 주민세	450	518	68	115.1%
	당기순이익	403	1,087	684	269.7%

※수치는 각클럽의 백만엔단위의 금액을 단순합계했으며, 단수처리로 종합수치가 일부, 일치하지않는 곳있음

4. 3기연속 적자, 채무초과클럽

적자클럽은 감소, 채무초과클럽은 증가
2014년도말에 「3기연속적자」 또는 「채무초과」가 될 가능성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클럽은 2015시즌 J1, J2라이센스가 교부되지않는 경우가 있다.

J1, J2합계	2011	2012	2013
[클럽수]	[38]	[40]	[40]
적자클럽수	18	12	11
3기연속적자클럽수	4	5	4
채무초과클럽수	11	9	11

J1	2011	2012	2013	클럽명(2013년도)
[클럽수]	[18]	[18]	[18]	
적자클럽수	8	5	4	쇼난, 시미즈, 나고야, 토스
3기연속적자클럽수	2	3	1	나고야
채무초과클럽수	3	3	3	요코하마FM, 토스, 오이타

J2	2011	2012	2013	클럽명(2013년도)
[클럽수]	[20]	[22]	[22]	
적자클럽수	10	7	7	토치기, 군마, 도쿄V, G오사카, 코베, 후쿠오카, 나가사키
3기연속적자클럽수	2	2	3	토치기, 군마, 코베
채무초과클럽수	8	6	8	삿포로, 토치기, 군마, 기후, 코베, 후쿠오카, 키타큐슈, 쿠마모토

5. 클럽 수입과 입장자의 관계

J1

영업수입 (단위: 백만엔)	평균단가 입장료수입 ÷ 총입장자수(엔/명)	입장률 입장자수 ÷ 입장가능수
1 우라와 5,786	1 우라와 3,380	1 카와사키F 78.9%
2 요코하마FM 4,315	2 카시와 3,027	2 센다이 74.8%
3 나고야 4,226	3 센다이 2,995	3 코후 73.1%
4 카시와 4,122	4 C오사카 2,982	4 오미야 72.6%
5 F토쿄 3,545	5 나고야 2,682	5 이와타 68.1%
6 카시와 3,412	6 토스 2,681	6 카시와 67.7%
7 이와타 3,298	7 카시와 2,680	7 시미즈 67.6%
8 오미야 3,228	8 이와타 2,408	8 니가타 62.6%
9 카와사키F 3,214	9 요코하마FM 2,287	9 우라와 59.8%
10 C오사카 3,213	10 시미즈 2,176	10 C오사카 58.8%
11 히로시마 3,198	11 히로시마 1,963	11 쇼난 53.5%
12 시미즈 3,084	12 카와사키F 1,908	12 토스 49.8%
13 니가타 2,548	13 코후 1,879	13 F토쿄 49.7%
14 센다이 2,429	14 F토쿄 1,849	14 나고야 49.5%
15 토스 1,704	15 오이타 1,827	15 요코하마FM 44.3%
16 코후 1,481	16 오미야 1,801	16 히로시마 43.9%
17 오이타 1,406	17 쇼난 1,561	17 카시와 43.2%
18 쇼난 1,191	18 니가타 1,518	18 오이타 37.2%

J2

영업수입 (단위: 백만엔)	평균단가 입장료수입 ÷ 총입장자수(엔/명)	입장률 입장자수 ÷ 입장가능수
1 G오사카 2,786	1 G오사카 1,802	1 G오사카 58.5%
2 치바 2,330	2 치바 1,680	2 오카야마 55.4%
3 코베 1,960	3 교토 1,569	3 마츠모토 54.3%
4 교토 1,930	4 삿포로 1,560	4 치바 51.2%
5 도쿄V 1,236	5 도쿄V 1,532	5 미토 45.7%
6 토쿠시마 1,211	6 후쿠오카 1,497	6 코베 40.4%
7 요코하마FC 1,152	7 코베 1,402	7 요코하마FC 39.7%
8 삿포로 1,071	8 토치기 1,398	8 교토 38.9%
9 야마가타 1,041	9 요코하마FC 1,390	9 기후 34.8%
10 오카야마 1,034	10 야마가타 1,370	10 삿포로 34.4%
11 마츠모토 939	11 키타큐슈 1,320	11 토토리 34.1%
12 토치기 876	12 토스 1,154	12 에히메 34.0%
13 후쿠오카 871	13 토쿠시마 1,150	13 야마가타 33.5%
14 나가사키 718	14 군마 1,120	14 토치기 32.2%
15 토야마 701	15 나가사키 1,019	15 키타큐슈 31.1%
16 키타큐슈 686	16 미토 926	16 나가사키 30.4%
17 쿠마모토 680	17 쿠마모토 902	17 후쿠오카 25.6%
18 토토리 646	18 오카야마 894	18 토야마 24.1%
19 기후 576	19 토야마 894	19 군마 23.4%
20 에히메 547	20 마츠모토 858	20 토쿠시마 21.9%
21 미토 508	21 기후 779	21 쿠마모토 20.9%
22 군마 469	22 에히메 675	22 도쿄V 12.1%

입장률은 홈경기장에 실시된 시험 입장자수의 평균을 홈경기장 입장가능수로 나눈 수치다. 또 홈경기장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평균에 산출

2013(헤이세이25)년도 J클럽 개별정보개시자료

(단위:백만엔,▲:손실)

클럽명	J1																			J1 총합계	J1 평균
	카시마	우라와	오미야	카시와	F토쿄	카와사 키F	요코하 마FM	쇼난	코후	니가타	시미즈	이와타	나고야	C오사 카	히로시 마	토스	오이타				
결산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4년 3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3년 12월	2014년 1월	2014년 3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1. 손익총괄																					
영업수익	2,429	4,122	5,786	3,228	3,412	3,545	3,214	4,315	1,191	1,481	2,548	3,084	3,298	4,226	3,213	3,198	1,704	1,406	55,400	3,078	
광고료수입	901	1,864	2,319	2,296	1,947	1,422	1,702	1,513	387	683	963	1,219	1,645	2,457	1,499	1,373	632	680	25,502	1,417	
임차료수입	757	748	2,132	341	646	788	540	1,069	263	403	674	523	446	736	954	541	548	370	12,479	693	
J리그배분금	225	235	258	214	204	206	218	228	191	208	215	225	206	221	220	232	234	202	3,942	219	
아카데미관련수입	88	269	15	142	71	422	164	455	0	36	143	319	249	258	0	99	74	48	2,852	158	
그 외 수입	458	1,006	1,062	235	544	707	590	1,048	350	151	553	798	752	555	540	953	216	106	10,625	590	
영업비용	2,431	4,081	5,633	3,226	3,380	3,482	3,170	4,306	1,211	1,460	2,636	3,140	3,233	4,304	3,201	3,072	2,039	1,191	55,196	3,066	
팀인건비	1,169	1,701	2,016	1,606	2,118	1,637	1,557	1,701	530	707	1,077	1,251	1,369	2,348	1,212	1,449	1,012	556	25,017	1,390	
시험관련경비	144	384	497	226	198	373	174	341	82	101	283	208	328	283	464	263	273	75	4,698	261	
팀운영경비	189	310	434	472	266	284	262	443	98	172	277	228	253	448	652	279	129	144	5,340	297	
아카데미운영경비	68	166	102	68	40	255	75	314	0	21	128	197	182	191	0	126	23	70	2,026	113	
여자팀운영경비	56	0	62	0	0	0	0	0	0	39	0	0	0	0	0	0	2	159	9		
판매비및일반관리비	805	1,520	2,522	854	758	933	1,102	1,506	501	459	832	1,256	1,101	1,034	873	954	602	344	17,956	998	
영업이익	▲2	41	153	2	32	63	44	9	▲20	21	▲88	▲56	65	▲78	12	126	▲335	215	204	11	
영업외수익	30	47	12	9	16	29	2	3	12	9	148	19	23	24	0	26	38	13	460	26	
영업외비용	1	2	3	10	35	3	0	12	3	6	9	2	5	4	4	5	0	6	110	6	
경상이익	27	86	161	1	13	89	46	0	▲11	24	51	▲39	83	▲58	8	147	▲297	222	553	31	
특별이익	0	0	0	0	0	0	0	1,000	0	7	0	0	0	0	0	0	0	0	1,007	56	
특별손실	0	0	0	0	0	0	0	0	0	20	0	0	1	0	0	0	0	1	22	1	
세전당기이익	27	86	161	1	13	89	46	1,000	▲11	11	51	▲39	82	▲58	8	147	▲297	221	1,538	85	
법인세및주민세	18	8	69	1	10	22	25	0	0	8	22	1	37	20	2	17	2	0	262	15	
당기순이익	9	78	92	0	3	67	21	1,000	▲11	3	29	▲40	45	▲78	6	130	▲299	221	1,276	71	
2. 대차대조표																					
유동자산	630	925	562	324	182	1,839	807	1,711	248	354	561	333	758	254	470	851	159	186			
고정자산	578	1,214	717	912	2,056	118	434	67	90	214	344	707	528	335	314	283	58	55			
자산부 합계	1,208	2,139	1,279	1,236	2,238	1,957	1,241	1,778	338	568	905	1,041	1,286	589	784	1,134	217	241			
유동부채	180	455	574	587	1,232	560	495	2,301	259	237	340	380	486	403	539	455	403	375			
고정부채	347	94	86	638	9	0	112	155	59	36	110	163	62	172	60	54	22	231			
부채부 합계	527	549	659	1,225	1,241	560	607	2,456	318	273	450	544	548	575	599	509	425	606			
자본금	454	1,570	160	100	100	1,065	349	31	630	367	712	550	679	400	315	220	605	2			
자본잉여금	0	147	0	240	932	0	31	0	260	0	0	0	0	0	0	52	454	0			
이익잉여금	227	▲127	460	▲329	▲35	332	255	▲708	▲870	▲72	▲257	▲53	59	▲386	▲130	353	▲1,286	▲366			
자본(순자산)부 합계	681	1,590	620	11	997	1,397	635	▲677	20	295	455	496	738	14	185	625	▲207	▲364			

(단위:백만엔,▲:손실)

클럽명		J2																					J2 총합계	J2 평균
		삿포로	야마가타	미토	토치기	군마	지바	도쿄요코하 V 마FC	마쓰모토	도야마	기후	교토	G오사카	군베	돗토리	오카야마	토쿠시마	에히메	후쿠오카	기타큐슈	나가사키	쿠마모토		
결산월	2013년 12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3년 12월	2014년 1월	2013년 12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3년 12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1. 손익총괄																								
영업수익	1,071	1,041	508	876	469	2,330	1,236	1,152	939	701	576	1,930	2,786	1,960	646	1,034	1,211	547	871	686	718	680		
광고료수입	432	258	189	474	217	1,515	534	579	386	393	266	1,235	1,696	682	268	439	821	217	324	272	248	278		
임차료수입	330	202	90	145	84	353	204	177	199	84	74	260	465	339	99	161	105	56	180	88	132	118		
J리그배분금	103	99	90	95	93	100	89	92	99	92	90	107	105	104	112	98	95	90	94	90	100	100		
아카데미관련수입	54	61	38	64	4	55	174	46	5	52	41	134	138	231	40	75	58	67	171	50	36	23		
그 외 수입	152	421	101	99	72	307	235	258	249	80	105	194	382	604	126	261	133	117	102	186	203	161		
영업비용	1,236	1,030	507	955	494	2,217	1,303	1,130	939	679	611	1,681	2,839	2,401	635	994	1,148	545	966	673	728	671		
임인건비	359	468	230	410	163	994	357	482	368	273	241	692	1,486	1,160	207	411	601	247	390	249	229	261		
시험관련경비	212	63	35	76	58	146	144	71	100	59	67	135	233	187	44	70	52	21	73	48	115	42		
팀운영경비	176	137	65	110	78	262	260	185	115	123	101	156	194	304	61	81	142	83	161	99	78	103		
아카데미운영경비	59	64	10	32	9	73	91	38	5	22	33	145	114	115	27	18	28	9	58	26	26	17		
여자팀운영경비	0	0	0	0	0	66	36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판매비및일반관리비	298	167	326	186	676	415	353	352	202	169	553	812	635	297	414	325	183	284	251	279	248	7,854		
영업이익	▲165	11	1	▲78	▲25	113	▲67	22	0	22	▲35	249	▲53	▲441	11	40	64	2	▲95	14	▲9	9		
영업외수익	180	0	2	1	11	3	0	0	4	1	0	17	29	12	0	0	6	0	19	0	0	5		
영업외비용	7	0	1	2	3	8	2	0	0	0	9	3	▲35	5	8	5	1	0	10	2	2	2		
경상이익	8	11	2	▲79	▲17	108	▲69	23	4	23	▲44	263	11	▲434	3	35	68	2	▲86	12	▲11	12		
특별이익	0	0	2	35	0	0	0	0	0	0	140	0	0	68	0	0	0	0	0	0	0	0		
특별손실	0	0	0	1	0	0	1	18	0	0	0	0	0	3	0	0	0	0	0	0	0	0		
세전당기이익	8	11	4	▲45	▲17	107	▲70	5	4	23	96	263	11	▲369	3	35	68	2	▲86	12	▲11	12		
법인세및주민세	2	0	0	2	1	10	0	2	2	0	8	112	74	1	1	1	34	2	1	1	0	2		
당기순이익	6	11	4	▲47	▲18	97	▲70	3	2	23	88	151	▲63	▲370	2	34	35	0	▲87	11	▲11	10		
2. 대차대조표																								
유동자산	618	131	142	258	108	311	376	355	163	224	125	943	299	383	23	386	602	168	86	105	192	164		
고정자산	67	12	19	22	11	1,064	22	138	59	4	4	102	436	227	439	34	158	35	259	28	26	13		
자산부 합계	685	143	161	280	119	1,375	398	493	222	228	129	1,045	735	610	462	420	760	203	345	133	218	177		
유동부채	165	118	82	331	175	509	309	360	52	169	202	542	516	240	184	283	197	19	328	101	185	200		
고정부채	551	0	19	12	0	325	80	101	3	4	20	30	50	1,991	225	10	20	0	45	43	2	38		
부채부 합계	716	118	101	343	175	835	389	461	55	173	222	572	566	2,231	409	293	217	19	373	144	187	238		
자본금	876	—	80	305	234	490	276	344	128	97	147	3,605	10	98	160	98	409	209	126	156	221	273		
자본잉여금	0	—	103	105	76	390	237	115	0	28	145	0	0	563	96	36	0	▲1	196	0	0	0		
이익잉여금	▲907	—	▲123	▲473	▲366	▲340	▲504	▲427	39	▲70	▲385	▲3132	159	▲2283	▲203	▲7	134	▲24	▲350	▲166	▲190	▲334		
자본(순자산)부	▲31	25	60	▲63	▲56	540	9	32	167	55	▲93	473	169	▲1,622	53	127	543	184	▲28	▲11	31	▲61		

(단위:백만원.▲:손실)

클럽명		신입회 클럽													
		모리오카	아키타	후쿠시마	마치다	YS요코하마	사가미하라	나가노	카나자와	후지에다	사누키	류큐	신입회 총합계	신입회 평균	
결산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4년 3월	2014년 1월	2013년 12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2014년 1월			
손 의 총 괄	1. 손익총괄														
	영업수익	75	188	207	363	145	111	308	278	95	220	66	2,055	187	
	광고료수입	39	103	134	204	22	81	228	189	71	90	23	1,184	108	
	입장료수입	0	11	11	32	7	15	23	8	6	25	5	143	13	
	J리그배분금	0	6	0	52	3	0	7	0	0	1	0	69	6	
	아카데미관련수입	18	27	16	6	93	0	11	21	0	26	9	227	21	
	그 외 수입	18	41	46	69	20	15	39	60	19	78	29	434	39	
	영업비용	84	207	204	357	147	115	337	277	126	219	146	2,219	202	
	팀인건비	37	70	52	115	2	35	154	100	32	84	59	740	67	
	시합관련경비	3	4	15	32	5	7	7	22	6	14	3	118	11	
	팀운영경비	8	29	32	49	22	15	57	41	17	37	14	322	29	
	아카데미운영경비	3	12	12	13	28	0	13	13	0	10	3	107	10	
	여자팀운영경비	0	2	0	0	2	0	8	0	0	0	0	12	1	
	판매비및일반관리비	33	90	93	148	88	58	98	101	72	74	66	920	84	
	영업이익	▲9	▲20	2	6	▲2	▲4	▲29	0	▲30	1	▲80	▲164	▲15	
	영업외수익	6	26	1	1	3	4	0	2	4	5	3	54	5	
	영업외비용	1	2	0	4	0	1	0	0	0	2	0	10	1	
	경상이익	▲4	4	3	3	1	▲1	▲29	2	▲26	4	▲77	▲120	▲11	
	특별이익	0	0	2	0	0	0	0	0	0	0	0	2	0	
	특별손실	0	0	0	0	0	0	0	0	0	0	0	0	0	
	세전당기이익	▲4	4	5	3	1	▲1	▲29	2	▲26	4	▲77	▲118	▲11	
	법인세및주민세	0	0	1	1	0	0	0	0	0	0	0	2	0	
	당기순이익	▲4	4	4	2	1	▲1	▲29	2	▲26	4	▲78	▲120	▲11	
	2. 대차대조표														
	자 산	유동자산	25	9	76	75	50	23	40	42	31	119	73		
		고정자산	18	18	6	36	7	4	2	23	65	29	9		
자산부 합계		43	27	82	111	57	27	42	65	96	148	82			
부 채	유동부채	23	31	37	19	40	23	27	18	34	111	39			
	고장부채	14	83	6	72	0	4	0	0	3	7	0			
	부채부 합계	37	114	43	91	40	27	27	18	37	118	39			
자 본	자본금	58	56	39	142	—	9	74	100	116	77	121			
	자본잉여금	0	0	0	95	—	0	9	0	113	76	0			
	이익잉여금	▲52	▲143	0	▲217	—	▲8	▲68	▲53	▲169	▲123	▲78			
	자본(순자산)부 합계	6	▲87	39	20	17	0	15	47	60	30	43			

※류큐의 회계기간은 헤이세이25년5월23일부터 36년1월31일까지

[주]※단수처리 영향으로 합계치가 일부 일치하지 않는 곳 있음. J1,J2,신입회클럽 총합계 수치는 각 클럽의 백만엔단위의 금액을 단순히 합계한 것
 ※상기 수치는 클럽운영 법인단체의 수치로,아카데미(육성보급)사업용, 클럽운영법인과 직접관계있는 NPO법인과 일반사단법인으로 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카데미 관련수입 및 비용이 상기수치에 포함되지 않는 곳 있음
 ※고정자산등의 구분에는 이연자산(繰延資産)도 포함해 표시하고 있다.
 비고: 2005회계연도분부터, 클럽별 개별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06회계연도분부터는 전클럽의 모든 항목을 개시

J리그 클럽라이선스 제도 및 심사방법에 대해

클럽라이선스 제도의 시행에따른 실현하고 싶은 것
 J리그는 「파이낸셜 페어플레이가 세계 제일 실현되고 있는 리그」를 목표로한다.

- 「업계로서 안정된 경기환경을 보장하는것」이 리그브랜드 향상으로 이어진다.
- 클럽라이선스제도(채무기준) 취지는 클럽 채무의 건전성을 클럽자신이 파악해, 클럽자신이 미리 대응함에 따라 리그 전체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향상하는 것이다.
- 아래와 같은 경우는 두가지 측면에서 라이선스 교부가 어려워진다.
 - ①라이선스 품을 판정하기위해 객관적인 정보가 없다.
 - ②예초「재무건전성 확보」라는 제도취지에 반하는 행동이다 (클럽의 경영이 전혀 안정되지 않는다)
- 클럽이 상기취지를 이해하고 기한의 인식을 갖고, 재무상태의 개선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아래와 같은 사고로 임하는 클럽을 억제해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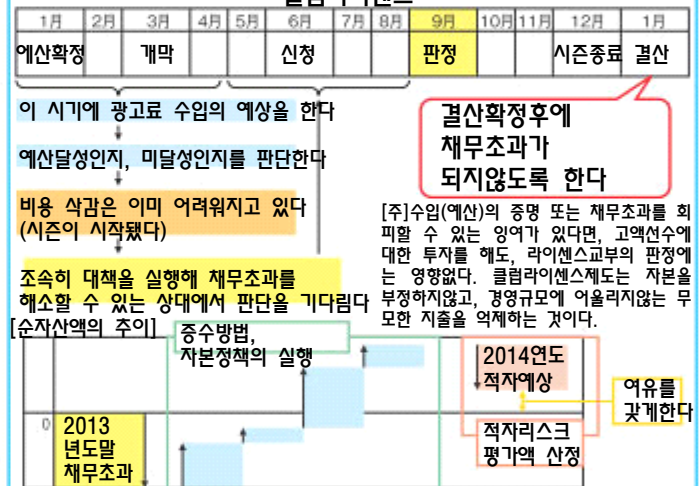
클럽라이선스는 객관성이 있는 판정과 제도취지에 따른 운영을 한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예산확정	개막							신청				시중종료
								판정				결산

전년도 결산에서 적자나 채무초과와 경우, 라이선스 교부 판정후에「가까운 시일내에 증자하거나, 수입을 획득하기 때문에, 채무초과는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해도, 심사원은 판단 방법이 없다(객관적 증거가 없다.)

이번 분기에서 재무기준 심사방법에 대해

2013년도에 채무초과 또는 2분기 연속적자의 클럽은 14년9월말 클럽라이선스 교부판정전에, 채무초과 또는 3분기 연속 적자를 해소 클럽라이선스



- ① 2013년도의 채무초과액이 정해진다
- ② 채무초과(및 3분기연속적자)를 해소하기위해, 구체적인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그걸 지역(지자체나 지원기업등)에 설명후,실행에 옮긴다
- ③ 2014년도 예산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해, 수입달성의 경우 적자리스크를 추산한다.
- ④ 상기 전부를 기초로,2014년도말에 채무초과(3분기 연속적자)를 해소할수있는지를 예상한다.

Voice

자국리그에서 닮은 「우리들의 축구」

増島 みどり (마스지마 미도리)



PROFILE

神奈川県出身。スポーツ新聞記者を経て独立。サッカー日本代表をフルカバー。オリンピック、各世界選手権など海外取材も多い。1998年のFIFAワールドカップフランスに出場した日本代表を描いた『6月の軌跡』でミズノスポーツライター賞を受賞するなど著書多数。ブラジルW杯前にはアルベルト・ザッケローニ監督取材した『ゆだねて束ねる』を刊行。法政大学スポーツ健康学部講師。

조별예선 3차전이 열린 쿠아바의 호텔은, 레플리카 유니폼을 입은 콜롬비아서 포터로 점거됐다. 아침식사는 끝없이 노란 유니폼을 매워져, 특히 뷔페가 있는 「에어리어네」의 밀집도는 대단하다. 만들어진 스크럼블에그나 햄이 옮겨질 때마다, 접시를 한속에 들고 자리에서 서는 그들의 민첩한 스타트러시에 압도돼, 일본인은 모두 사양하고, 바깥 테라스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다.

그런 광경을 보면서, 아라며 한숨이 나온다. 아침식사가 「바이탈에어리어」에 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이, 어떻게 카가와신지에서 「무서워말고 승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며, 그리고 자기 자신 속에 잠재한가, 약한 「일본대표」로 알게된다. 타 국제대회 취재와는 달리, 월드컵에서는 몇 번이나 이런 감격을 맛봤던 것이다.

「오늘은 콜롬비아가 3-1로 이겨요」 「네네, 그렇군요」라며 적당히 답해도, 대표 이야기가 되면 그들은 끈질기다 「하메스(로드리게스)가 헤트트릭. 하지만 실망하지마. 일본에는 프로리그가 없는데 잘하고 있어... 아, 있지 뭐였지」 「있어요, J리그. 재팬의 J리그요」라고 끈질기게 설명했지만, 이번은 저쪽이 적당히했다. 어쩔 수 없다. 이번 대회 첫 8강에 진출해 축구 세계 각지에서 존재감을 늘린 국가로서 프로 20년째의 국가에 대해 표준적인 인식일테니까.

독일과 벨기에의 10년강화 플랜을 지원한 것은 협회와 리그 일체감

5대회연속 출전을 하고, 과거 사상최대인 12명의 해외파가 모인 일본대표가, 불과 승점 1점으로 끝난 교훈은 패인의 분석이라는 각론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축구를 뿌리부터 지원하는 「리그」의 존재감, 중론을 재검토해야한 시점에 있다. 24년만에 우승한 독일과 비

교는 시기상조일지 모르지만, 14년전 2000년 유럽선수권 조별예선에 최하위로 끝났을 때, 독일이 안은 위기감은 배워야할 것이다.

「10년 강화플랜」을 주도한 것은 분데스리가다. 36클럽에게 유스세대의 아카데미보유를 의무화해, 독일축구연맹은 11~18세 젊은 선수 발굴과 육성에 국내 366곳에 트레이닝센터를 설치. 00년도에는 7개였던 축구전용 경기장은 06년 독일월드컵(독일은 3위)후 15로, 리그 활성화로, 평균입장자수는 현재 세계최대인 4만명을 돌파했다(J1리그 작년평균은 1만7255명). 클럽에는 자국선수 12명, 그중 반은 연고지 출신의 선수와 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테이터는 분데스리가)

00년의 유럽선수권에서 자국개최(네덜란드와 공동개최)이면서 조별예선에서 탈락한 벨기에도 또한 국내 강화체제를 다시한 10년 플랜을 확립. 이번 대회 28년만에 8강에 진출하는 결과를 보였다. 국일과는 달리, 젊은 선수를 유럽의 유력 클럽에 배출해 키우는 강화는 이민이 많은 국가만의 정채이다. 양국의 근본적인 공통점은 협회와 리그의 일체감을 동반한 연대이며 「위기감의 공유」에 있다. 패인분석은 피치안뿐만 아니라, 피치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떨지, J리그와 JFA도 신념을 물을 시기다.

우리들의 축구는 자국리그에 존재한다

「해외에서 뛰는 선수가 늘어나며」이라며 대표강화를 국외 클럽에서 경험치를 요구한 시대도 일단락했다. 해외게다가 강호클럽에 소속된 선수의 수가 늘어나도 세계에서 불과 32개국밖에 출전하지 않는 월드컵에서 「자국의」 축구를 어떻게 강력히 보일지,

그 커다란 테마에는 반드시 이어지지 않는다. 이번 대회, 일본대표에 대해 「우리들의 축구」라는 표현이 띄었지만 「우리들 축구」는 본래 엄격한 자국리그에서 단련돼, 명확이 되는 것이며, 그 시점의 대표감독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일본대표는 1998년 월드컵 첫출전 이후 16년간 17시합을 싸워왔지만 이번 대회에서 처음 경험한 시합 전개가 있다. 코트디부아르전에서(첫경기) 처음 초반 16분에 득점했지만 이기지 못했다. 그르스전에서 처음으로 상대에게 게다가 전반에 퇴장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고 무승부로 끝났다. 예를들면 J리그에서는 역전승리의 비율이 14.4% (2011~13년)로 매우 낮다. 이런 싸움방식, 승리방식의 변형 부족은, 일본대표가 월드컵 과거 17시합에서 한번도 역전승하지 못한 사실과 강하게 링크되고 있다. 능숙한 시합을 하기위해서는 경험이 부족하다.

선수에게는 J리그에서 싸우는 힘든점을 요구하며, 리그,협회는 강화계획을 만들어, 미디어,서포터는 활성화를 후원하다. 그것이 이루어지지않으면 J리그를 몰랐던 그 콜롬비아 서포터에게도 언젠가 「오늘은 3-1로 일본이 이겨」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목표로는 길은 눈앞에.



FIFA월드컵 우승의 독일. 강화플랜을 주도한 것은 국내리그인 분데스리가다

©共同通信社

